

* 팀NO : 2019- 36

2019 단기선교팀 변경 신청서(기간변경,팀원추가)

선교위원회 확인

1. 신청부서 : 네팔 2 팀 / *항공권구매: 교회

2. 선교지 : 네팔 포카라

(공항 : 카트만두

(2)

3. 사역기간 : 2019년 10월 08일(화) ~ 10월 15일(화) / (7)박(8)일

서 기

지도목사

위원장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안집	변인식	BYUN IN SIK	5	수료	84-12				
2	총무	집사	고영학	KO YOUNG HAK	12	예정	11-49				
3	서기	집사	이성훈	LEE SUNG HUN	14	수료	17-09				
4	회계	집사	이승근	LEE SEUNG KEUN	1	수료	04-74				
5	의료	집사	김보리	KIM BO RIE	8	예정	92-77				
6	언어	장로	송한천	SONG HAN CHUN	5	예정	87-83				
7	부서기	집사	성바로	SUNG BA RO	14	예정	04-17				
8	부회계	집사	권혜은	KWON HYE EUN	9	예정	04-30				
9	어린이사역	집사	고윤희	KOH YOUN HEE	1	예정	89-14				
10	어린이사역	집사	이용초	LEE YONG CHO	5	예정	98-11				
11	어린이사역	집사	우병희	WOO BYEONG HEE	2	수료	91-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2차심사후 3차심사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총무,서기,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소 감 문

소 속 : 네팔 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981188

이름 : 이 용 초
안나루르나

우리가 아는 니팔 리탈리아 산맥의 땅 에레베스트산의 나라
니팔 카루판두공항에 내리니 현지인들의 축제기간으로 민족이동. 고향
을 찾아 축목을 받는 기간... 이파에 붉은 꽃잎인지 쌀알로 장식
키벌에 으로 장식한 크게 깃털같이 장식한 이들의
발걸고. 황갈색 긴 드레스 전통 화사한 의상으로 단장한 여인
들... 불긋불긋 등산복을 입은 등산객. 황토색 라마
승복을 입은 가사를 걸친 승려를 이곳이 이국땅임을 느끼게
하였으며 공항타운지 옆에 작은 와고라. 브라흐마 신상과
카비쉬(코끼리 머리) (시바와 바르바디의 아들) 신상으로
이곳이 힌두교, 불교, 무슬림, 티벳 라마교의 온상으로
1850년도에 기독교가 들어 왔으나 종교적, 정치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내리지 못한 땅. 막혀하고 선고를
먹고 있는 땅. 우리 일행은 이곳을 찾아 포차리를 찾아
깊이 깊이 각마루한 남떨어지 깊은 계곡 옆을 끼고 워텍스
림계 달려 내려가는 버스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며 찾아갔었습니다.
현지 안목사님의 성도들의 가정사역. 경제적이건, 열악한
환경 좋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열정, 또라이

만남의 기쁨. 천국 백성들의 기쁨을 나누는 이곳. 저곳 지교회와 성도^{16.2}
의 축복이 같이하길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울리며,
평지가 아닌 산비탈과 천곡연에 형성된 마을. 민중의 성도자 사도들
하루 2-3곳과 지교회 방문 이곳 내일은 토요일이 성일이라
주일을 토요일에 보내게 되었는데 열정적이고 무용회같이 열
으로 교감되어 부르는 찬양과 울림을 울림 비록 그들의 찬양
기로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몸으로 느껴지는 성령의 임재를
느껴서 하사옵고 어린이 사역으로 십자가 사랑 중에
적어. 천지창조 선행하기를 남녀 노소같이 기뻐하고
선행하고. 천주에 가는 길은. 천지 창조.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울음을 다 같이 은혜 스럽게. ...
각 가정은 방문 예배. 찬양. 울림. 성령과 사랑의 나누

만 뭉쳐서 열정있는 사역. 성도들의 찬양. 기라. 성령의
울림 성령에 가득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무용회 영성훈련장 ...

예배 인도로 진정 메달의 복음화는 우리 비록 선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달 현재 목사님과 이곳에
제신 장로님과 청소년 부녀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우리는 다시 그들을 보는 증인으로 이곳에 무용되는 역사를

참관하는 참관자로서 그들의 모습 순교하고
 열정적이며 모이는 데 힘쓰는 그들은 복음이며
 심방하며 그들 각 가정의 작은 교회 지교회로
 독립하고 이웃에 전도하고 순교하여 주님의 세계를
 확장하는 복음의 역군을

그들이 역활을 확장하고 이웃을 이끌어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 주옵소서!
 네팔땅에 주님의 세계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날이 주님의 교회가 은혜롭게 새롭게
 그로리아 교회 (영광) 교회가 새롭게 건립되어
 네팔땅 포카라에 복음의 등불로 우뚝서게
 하시옵소서!
 많은 지 교회를 품는 교회로 복종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림니다
 아멘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89-1483

이 름 : 고 훈 희

선교는 나를 부르신자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면서도
자원이 아닌, 아픔함으로 선교에 임하게 됨을 보며
언제쯤 나 스스로 자원할 수 있겠는가? 나의 큰 숙제이다.

네팔땅은 복음을 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땅인들이 더 원망하게
여겨진다. 현지 교회의 성도들을 섬방하며 주변에 모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기에 무지한데 섬방하였다.

영남교회의 단목사님과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랑을 주님께
이끌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네팔의 축제기간으로 많은 사랑이
접어들어 교회의 성도들이 작아 많이 아쉬웠다.
젊은 청년들과의 사역이 참으로 힘있고 즐거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91-1134

이 름 : 우 병희

팀원 11명으로 구성된 네팔2팀
우선 젊은 분들이 많아서 든든한 마음으로 선교 준비를 하였다
네팔은 2년 전만해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다했는데 이제
복음 전파가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다.
그래서 현지교회와 협력 선교를 해야 한다
네팔 선교 4년차 집집마다 심방 예배를 드리며 매년 찾던 집을
찾아갔을때 너무 반가워 하며 기쁘게 맞아 주었다
2년전 길에서 만난 두 고파 아이들 집을 찾아갔다. 부모님과 옆집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지만 준비해간 학용품 두아이에게 전해 주며,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네팔 언어로 아이들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소리 내어 공개적으로 전할수없음을 말할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개인적으로 두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 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지
세월이 갈수록 복음 전파는 더 어려울 것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함께 동행 하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픔.고통.슬픔.
모든것을 전디며 영혼을 전지는 일에 열심을 다 할것을 다짐해 보며
우리과 늘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04-0302

이 름 : 주현민

위키백과에서 아내로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간대들을 편하게 하는 일을 보고 훈련도 자연스럽게 되었지
채널북(3박)가 간다고 하여 편하게 가면 더 시너지가 있을것
같아 하나나의 용기로 비잔틴을 타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아!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느껴왔던 삶을 경험하게 되었지
감사할것 말고 정말 부딪혔던 부딪혔던 삶을 되돌아보고
비잔틴 사람들 가까이한 친구들 웃으며 삶을 나누는거에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12살 리디아가 나가기 전에 항상
웃으며 마미 사랑하는 나에 가족으로 가져와 주어야겠다는
친친한관계에 생애 두로 아들이 생각하며 고맙게하러
채널북과 삶에 마음에 채널북과 나고싶은 마미들을 선물로 주니
꼭꼭이 기쁘게는 문답에 나도 기쁘지. 아! 하나나이를
보내신 아유가 있구나! 용기로 사랑과 내사랑이
하하하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쁘게되리라 같은데로
다시 once 리 열심히 하노라 사랑을 주어야 할 거야
노라를 사랑은 전해주고싶다. 서로 배려해줄 팀원들에게 감사한다.

선 교 소 감 문 (네팔2팀 송한천)

[사역국가: 네팔 포카라 / 사역기간: 10/8(화)~10/15(화)]

우리 팀은 젊은층 6명과 장년층 5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힘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어 이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하며 사역기간 내내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먼저 섬기려는 모습에서 사랑이 충만한 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피곤함으로 모르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포카라 변두리에 위치한 그로리어스 교회를 지원하며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Dhan)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도들이 대부분 티벳 난민 후손들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단 목사님과 함께 교인심방을 하였는데, 인사를 나눈 후 찬양, 사도신경, 성경봉독, 말씀, 그리고 합심기도, 주기도문의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순서를 현지어로 진행하였으며 성경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팀과 현지인들이 한절씩 교독하였고 말씀은 단목사님 하셨습니다. 심방시에는 이웃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믿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그들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그들도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였는데 찬양, 색칠하기, 만들기, 종교영화상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순서와 책임자를 미리 정하여 준비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모든 순서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정된 2시간 30분이 금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참 신앙을 갖고 장차 네팔 복음화의 일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및 교인의 사정과 반지하의 좁고 열악한 예배환경을 감안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여 작년에 주님의 은혜로 부지매입에 성공하였고 금년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 3년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정된 모든 사역이 큰 어려움 없이 은혜가운데 행해진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 없이 함께 해준 모든 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92-770

이 름 : 김 불 리

늘 그렇듯이 선교에 참여하면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번에도 귀를 살아게셔서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우리팀은 청년2부, 청년3부 그리고 새로 구성된 연합팀이었다. 현수님과 장로님들을 나를 이런 청년들을 위해 여러모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셨다. 이분들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동기(의) 기도제목을 통해 나는 진심으로 그의 슬픔을 위해 기도 해 주 수 있었고, 중보기도의 힘이 더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다.

늘 선교를 가기 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제목인데 이번에도 귀를 만나게 해 주셨다 것을 기뻐한다.

정점 더 내에 대한 기도에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했고, 나의 시각이 귀를 중심으로 변함을 느낀다.

매년 선교에 참여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 '나도 매년 참여 하고 싶다...' 라는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

부족한 내가 네째 땅에 성전물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한다.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원하며..

네째 땅에서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네째 땅에서의 모든 순간을 회개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소중한 기쁨을 감사하며...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4-0745

이 름 : 이 승 천

선교를 준비하며 옮기기에 부족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막히잖아
늘 마음가운데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었어.

그러던 중 선교를 통해 열락하고 힘든 곳에서도 오직 바울그리스도와
부활의 소망만으로 기뻐하며 참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고령을 보며
진실로 나 스스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 했고.

이미 허락되어진 구원의 은혜, 만복을 기뻐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예수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위협한 권도 내게 선하신 뜻이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저 나쁜분향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04-0174

이 름 : 성바조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께 받은 내가 세상속에 미치고 있던
것들을 제대로 해주고, 더욱 기도 하게

해 주심에 감사한 기도 사역이 있다

일약한 교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 감사함들과 기쁨 마음으로 환영

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난 진정 기쁨 많음,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찾아
왔는가. & 리제라는 시간은 기쁨을 얻었다.

일주일 전부터 리제 동양자를 꼭 ~~한번~~ ^{한번} 더위사

정말 감사한 전로 사역이 될 수 있었다.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미팅으로 전로

사역을 하고 싶다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2011-0494

이 름 : 고 영 학

네팔로 떠나는 선교는 이번으로 횡수는 네 번째가 된다. 카트만두 공항과 포카라 시내전경이 이미 눈에 선했지만, 이번 역시도 네팔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순간 심장이 요동하고 있었다.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예비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이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6시간여의 비행후 도착한 카트만두는 전보다는 많이 깔끔해진 모습이었다. 수줍은 웃음의 프루파 운전기사가 차량과 함께우리를 맞아주었다. 카트만두에서의 하룻밤은 금방이었다. 날이 밝고, 시차를 핑계달 여유없이 바로 사역지 포카라를 향해 출발했다. 도로가 양호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옆차 창문이나 길거리 사람들이 눈을 마주칠때면 웃어주곤 했다. 내리찍는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얼굴들이었다. 마치 주님이 준비해주신 형상들인 듯 했다.

약 8시간만에 멀리 포카라의 숙소가 보일 때, 이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전초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짐을 풀고, 도착예배후 내일부터의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서둘러 잠을 청했다.

새벽 눈이떠지고 은혜로운 경건회와 함께, 포카라 사역지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해주는 팀원, 재치로 응원해주는 팀원, 그리고 묵묵히 써포트 해주시는 권사님,집사님들로 인하여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예견되어지는 첫날이었다. 아침식사후 섬김으로 예정된 글로리어스 교회에 도착하였고, 현지인 단목사님의 마중으로, 오전에 교회의 직분자와 지하 눅눅하지만 아늑한 예배당에서 인사를 나누고, 현재 건축중인 교회 부지로 이동하였다. 생각보다 넓지 않았던 대지, 널부러져 있던 건축자재들, 열악해 보였던 건축에대한 여건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으나,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주 의욕적인 소개를 이어가는 단목사님의 얼굴을 볼 때 내 잠시의 생각들이 부끄러워 살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 글로리어스 교회가 포카라와 네팔 전역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사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후, 글로리어스 교회 교인에 대한 심방의 사역으로 이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였다. 하나같이 주님과 복음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려왔음을 느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네팔 대지진때 부모를 잃은 고아를 포함한 빈민의 아이들이 모여있는곳의 심방은, 내가 잊지못할 사역중의 하나였다. 주변을 둘러볼때에 아무것도 여의지 못한것들 뿐인데, 우리의 차량 도착지에서부터 마중나와 장로님의 손을 잡아채는 아이들의 순수함,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한 아이들의 환대와 처음배우는 찬양과 율동일텐데도 목청껏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은 나를 웃으며 눈물짓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 감동의 은혜는 어린이 사역의 프로그램으로 곧 이어졌다. 찬양과 율동, 친지 창조 색칠하기, 십자가 만들기, 예수님 영화상영까지 눈을떼지 않고 집중하며 우리의 하나하나를 응시하는, 그리고 항상 즐거워했던 아이들의 행복한, 그리고 순수했던 미소, 몸소 직접 나서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적극적인 모습들은 이글을 적는 지금 이시점까지도 눈앞에 생생히 기억나게 하고, 또 주님앞에 기도로 아이들의 축복과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하게 한다.

현지에서의 주일예배와 모든사역을 마친후 공항이 있는 카트만두까지의 이동하는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경관과 그안의 네팔 사람들의 눈망울을 또 함께 기억한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으나 개종의 자유는 없는, 그렇게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법이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전할수 없는 안타까운 네팔인들의 현주소가 그들의 눈망울에 간절함으로 투영되어 오는 듯 했다. 가슴이 너무 아파왔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된다. 법으로 제재하고, 자유로운 복음전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 주님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 총현의 부단한 협력선교, 또 끊임없는 기도중보를 통해 '주님 나라와 의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믿음,소망을 통한 행위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겠구나 마음으로 확신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주님께 금번 네팔2팀의 사역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순간, 주님의 만져주심과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롬10:14)'

소 감 문

소 속 : 네팔2팀 (변인식팀장)

팀번호 : 2019-036

교적번호 : 84-1231

이 름 : 변 인 식

그로리우스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을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한평생 야근복에서도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하고 리복찬 찬양 앞에서 나의 빛이 부끄러웠고 그들처럼
이 세상에서 기쁨을 향유하고 하는 여러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감리하고
진리으로 예수님을 아뢰고 깊은곳에서 우리 사랑하고 동행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화기 하였다

그리고 그로리우스 교회의 생애 동행하는 위하여 미려 하나님 동참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실때까지 복음의 빛을 자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